

국민성과 시대상황 대변하는 화폐단위

전 세계 180개가 넘는 나라에서 독자적인 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화폐의 단위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량, 원, 문, 원(圓), 환, 원 등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다. '과연 전 세계의 무수히 많은 화폐(단위명)에는 어떠한 유래가 있을까?' 이제 소개할 화폐이야기는 이와 같은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의문의 끝엔 언제나 또 다른 '진리'가 숨어있음을 떠올리며, 전 세계의 천차만별인 화폐단위와 그 유래를 통해 나라마다의 돈에 대한 의미를 펼쳐쳐보자.



'프랑(Fr)'은 왕의 이름이었다



먼저, '달러(\$)'는 16세기 유럽 보헤미아의 요아함스탈 지방에서 주조된 은화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에서 사용된 은화는 지방의 이름을 따 '요아함스탈러'라고 불리다가, 현재의 '달러(Dollar)'가 된 것이다. 이후에 소개할 화폐들과는 달리, '달러'는 단순히 지방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던 것이다. 사람의 이름까지도 빵이나 가축 등에서 따올 만큼 자유분방한 사상을 지닌 미국인답게 돈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다.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는 대부분 중량단위에서 화폐단위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영국의 파운드(£)는 이탈리아의 '리라'와 같은 유래를 두고 있는데, 중량단위인 파운드와 같은 의미인 'Libra'에 유래를 두고 있다. 독일의 마르크(M)는 은의 무게를 나타내는 중량단위에서 유래했다. 필리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멕시코, 쿠바의 '페소(Peso)' 또한 각각 중량을 뜻하는 스페인어의 'Peso'와 라틴어의 'Pensum'에서 유래되었다.

이처럼 중량에서 화폐단위의 유래를 찾을 수 있는 국가들은, 돈에 대해 '무게를 지닌 금속'이란 인식이 함께 하고 있었다. 물론 그들이 느끼는 돈의 무게는 다른 어떤 금속보다 무거울 것이겠지만, 무게로 값어치를 따진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만능적인 사회인식이 팽배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엔(¥)'은 신비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 걸맞게 화폐단위에 대한 유래도 세 가지나 전해져 온다. 그

중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알려진 하나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일본의 돈은 타원형에서 막대형, 원형 등 그 모양이 다양했다고 한다. 이를 하나로, 즉 원형으로 통일하며 동글 원자인 '엔(圓)'이라 부르게 되었다.

(네모형의) 지폐가 발행 되면서부터 '통일된 원형'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를 통해 당시 일본이란 사회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를, 왕정 국가로서 전국의 '통일'이 얼마나 시급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일본이 기본적인 '국가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폐단위를 사용했다면, 왕의 권력이 너무 높아져서 왕 자체를 칭송하기 위해 화폐단위를 사용한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프랑(Fr/Franc)'은 14세기 프랑스의 금화에 새겨진 프랑스 왕(Francorum Rex)의 이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한편론 이와 같은 유래를 통해 당시 프랑스의 힘이 얼마나 강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곧 '프랑'이란 화폐단위를 사용하는 국가들은 돈에 대한 의미를 권력의 상징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권력을 떠나 위대한 업적을 이뤘던 위인들의 이름을 화폐단위로 사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볼리바(Bolivar)'는 남미의 위대한 혁명가 'Simon Bolvar'의 이름에서, 엘살바도르의 '콜론(Colon)'은 아메

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롬부스'의 스페인어 이름에서 유래되었다.

특이하게도 신앙심에서 비롯된 화폐단위도 있다. 힌두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인도는 '쇼'를 뜻하는 '루피(Rupee)'를 화폐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도 같은 '루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들보다 앞선 국가인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원'은 순수 우리글이다?

그렇다, 원은 순수한 우리글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리의 화폐단위를 우리글로 짓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라며 쉽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원'은 이전 랑(염전을 사용하던)이란 단위에서 벗어나, 신식화폐가 등장하게 된 1901년부터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다 1905년, 일본의 지배 하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엔(圓)'과 같은 뜻으로 '원(圓)'을 사용하게 된다. 이후 1953년 제2차 화폐개혁을 통해 '환'이란 단위를 거쳐 제3차 화폐개혁이 일

어난 1962년에 들어와서야 순수 우리글이며, 현재까지 사용 중인 '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본의 지배 하에 있을 당시에도 우리 '원'을 사용했으며, 현재에도 우리 '원'이란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자칫 혼동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쉽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돈을, 우리의 '원'을 무엇보다 소중한 게 여겨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n